

주전급 내준 KIA... 'ERA 9위' 불펜 약점, 보완 절실했다

KIA, 김시훈 데려오고 최원준 내줘... 3대3 트레이드 단행
 “필승조 출신 김시훈, 구위 뛰어나... 불펜에 힘 보탬 것”

끝없는 추락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최근 고민거리인 불펜 마운드를 보강하기 위해 트레이드를 전격 단행했다.

KIA는 28일 NC에 외야수 최원준, 이우성, 내야수 홍종표를 보내고 투수 김시훈, 한재승, 내야수 정현장을 받는 3대3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KIA는 트레이드를 통해 구원 투수 2명을 데려오며 마운드 강화에 초점을 뒀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NC에 입단한 우안 김시훈은 4시즌 통산 174경기에 등판해 11승 12패 3세이브 29홀드 평균자책점 4.34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김시훈은 2022년 11홀드, 2023년 12홀드를 수확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홀드를 작성했다. 비록 올 시즌 15경기에서 1홀드 평균자책점 8.44로 부진했지만, 1군에서 검증된 불펜 자원이며 즉시 전력감으로 꼽힌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36순위로 NC에 지명된 오른손 투수 한재승은 4시즌 동안 92경기에 나서 1승 4패 8홀드 평균자책점 3.66을 작성했다.

지난해 51경기에서 홀드 6개와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던 한재승은 이번 시즌 18경기에 출전해 1패 평균자책점 3.00의 성적을 냈다. 한재승 역시 KIA가 1군 무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KIA 심재학 단장은 “김시훈은 필승조로 활약했을 정도로 구위가 뛰어나고, 한재승은 빠른 공과 구위를 갖췄다”며 “두 선수 모두 불펜에 힘을 보탬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시훈과 한재승을 영입하기 위해 KIA는 주전급 선수들을 내주는 출혈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2016년부터 KIA에서만 뛰었던 최원준과의 이별을 결정한 건 과감한 결단이었다.

2020년 타격 재능을 만개하며 타율 0.326을 찍었던 최원준은 지난해 136경기에서 타율 0.292 9홈런 56타점 21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91로 활약하며 팀 통합 우승 달성에 기여했다.

올 시즌 구원진의 난조가 이번 트레이드 버튼을 누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KIA 통합 우승에 큰 지분을 차지했던 구원진은 올해 팀 불펜 평균자책점은 5.22로 10개 구단 중 9위다. 팀 불펜 세이브는 14개나 범했다.

지난주 KIA는 구원 투수진이 무너지는 등 경기력 난조에 시달린 끝에 6연패 사슬에 묶였다. 공동 5위로 추락한 KIA는 불펜 보강뿐 아니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번 트레이드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뉴시스



전남의 스포츠 열기, 2026년 4월 구례서 타오른다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일 확정

2026년 봄, 전남 구례군에서는 도민 화합과 스포츠 정신을 담은 두 개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린다.

구례군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2026년 4월 10일(금)부터 13일(월)까지,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2026년 4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전라남도체육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의 선수단 약 7,000명이 참가해, 육상, 축구, 배구 등 23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진다.

이어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과 감동을 담아내는 뜻깊은 행사로, 포용과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은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정비, 숙박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자원봉사자 운영, 문화 행사 기획 등 다방면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 친화적 환경, 그리고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경기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전라남도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구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한국 양궁, 하계U대회 1위... 문예은 2관왕·남수현 개인 금

금메달 3개·은메달 2개·동메달 3개

한국 양궁이 2025 제32회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26일 막을 내린 하계U대회에서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리커브와 컴파운드 양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총 8개의 메달 중 5개가 컴파운드 종목에서 나오는 등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컴파운드 선수단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리커브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과 디펜딩 챔피언 서민기(국군체육부대)가 맹활약을 펼쳤다.

이들은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땀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서민기와 김선우(코오롱), 김예찬(경희대)가 힘을 맞춰 은메달을 땀다.

남수현은 여자 개인전 금메달까지 따며 방점을 찍었다.



컴파운드에서는 문예은, 박예린, 김수연(이상 한국체대)으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문예은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대회 2관왕을 획득했다.

여자 개인전 동메달을 딴 박예린은 박승현(계양구청)과 짝을 이뤄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쥐기도 했다.

남자 단체전에서는 박승현, 김성철, 이은호(이상 한국체대)가 동메달을 땀다.

메달뿐 아니라 대회 신기록도 무려 4개나 기록했다.

컴파운드 여자 대표팀이 50m 퀼리 피케이션 라운드에서 총 2084점을 기록하며 대회 기록을 새로 썼다.

이들은 준결승전에서 영국을 상대로 238점(240점 만점)을 쏘며 또 하나의 신기록을 작성했고, 남자 단체전 8강에선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238점을 기록해 재차 기록을 갈아치웠다. /뉴시스

손흥민·양민혁 한국 온다... 토트넘, 아시아투어 명단 발표

오는 31일 홍콩서 아스널과 맞대결... 8월 3일 서울서 뉴캐슬과 격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한 술밥을 먹는 손흥민과 양민혁이 한국을 찾는다.

토트넘 구단은 28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에 나설 29명의 선수단 명단을 공개했다.

토트넘은 오는 31일 홍콩에서 아스널(잉글랜드)과 프리시즌 북런던더비를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벌인다.

아시아 투어 명단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제임스 매디슨, 히샤를 리송, 도미니 솔란케, 로드리고 벳탄쿠르,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시즌 토트넘에 합류한 뒤 챔피언십(2부) 퀸즈파크 레인저스(QPR) 임대 생활을 마치고 복귀한 양민혁도 포함됐다.

반면 데얀 쿨루셰프스키, 라두 드라구신, 데스티니 우도기 등 부상자들은 영국에 남아 재활을 받는다.

아울러 임대 명단에 오른 마이키 무어, 알피 데바인, 데인 스칼렛 등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은 최근 각종 이적설에 휩



싸여 있다.

특히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LAFC)가 손흥민 영입에 나서면서 팀을 떠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손흥민의 이적 논의는 이번 아시아 투어가 끝나고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이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한국에 오지 않으면, 토트넘은 계약 위반으로 예정 수익의 75%를 포기해야 한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진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형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형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